

NEWS LETTER

2019년 7월 8일 Vol. 347

건강정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28일 5층 대강당에서 환자와 내원객을 대상으로 건강강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을 주제로 환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의를 진행됐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 산부인과 윤상호 교수, 류마티스 내과 이광훈 교수,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 등 분야별 5명의 전문의가 참석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전문 의료진들은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예방 방법,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건강정보도 제공했다.

강의를 진행한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은 고령의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 사이의 서로 다른 치료 원칙과 각 질환 극복을 위한 운동 치료를 알리고자 강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동익 교수 연구팀, 국가연구과제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익 교수 연구팀의 최승범 연구초빙 교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과제 선정으로 5년간 총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동맥 혈전증과 뇌경색 유발 후보 유전자의 역할 검증 및 기전 규명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최승범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뇌졸중 관련 기초 지식의 학술적 발전과 새로운 약물 개발연구 확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최근 '최초 혁신실험실 추가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첨단 실험 장비 구입을 위한 약 1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양양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6월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낙산사는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의 하나로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머무는 곳을 이르는 보타낙가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채석래 연우회 회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덕유스님, 이해원 일산병원장, 백용해 진료 부원장, 김광기 교육연구 부원장 등 연우회원 70여 명이 참가했다.

연우회원들은 문화해설가를 통해 낙산사의 오랜 역사 체험과 죽비에 맞춰 절을 올리며 108 염주 만들기 등 명상을 통해 정서적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종양환자관리위원회 원내교육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종양환자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2층 소화기내시경 회의실에서 교직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원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와 방사선종양학과 윤형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암환자의 평생건강관리’와 ‘조정밀 방사선 치료기 Versa HD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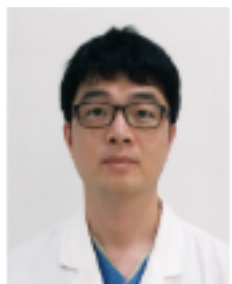
이날 강의를 통해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는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종양학과 윤형근 교수는 “Versa HD는 조정밀 맞춤형 치료로 정상조직을 손상하지 않아 방사선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20여 명의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참석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질병관리본부 ‘혈액사업 유공자’ 표창 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최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질병 관리본부에서 수여하는 ‘혈액사업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혈액안전감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혈액안전에 관심을 도모하고자 수여하는 것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최동훈 대리가 수상했다.